

사설

관람료 인상 최선인가

조계종이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명분은 북한사찰 복원기금 마련, 물가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북한사찰의 복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 듯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 우선은 조상의 유산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체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것이다.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 그들의 정성이 깃든 시주가 아닌, 손쉽게 조상의 유산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사찰과 종단이 운영되는 체제는 결국 적극적인 인 포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런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단과 사찰의 운영구조는 취약성을 안게 될 것이다.

왜 적극적인 발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 찾아오는 국민들에 대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안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적극적인 포교를 통해 신도 수를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불교 중흥의 길이 아니겠는가. 방만하고도 무질서한 사찰 관광의 행태는 귀한 포교의 자원을 헛되이 낭비할 뿐 아니라, 사찰 수행환경을 깨뜨리

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찰을 관광지화함으로써 수행도량의 위신마저도 흔들리고, 관람료를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안내 팸플릿 하나 변변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람료만 인상한다면 불자들이나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기보다 이따금씩 짜꾸리게 하지 않을지 돌아볼 일이다. 이같은 가운데 참여연대와 이 문제에 관한 소송까지도 걸려 있어 관람료 인상조치가 얼마나 국민들과 불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불교 문화재는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의 것이다. 불교계가 이를 보존하여 전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증지와 미래불교를 위한 큰 자산이다. 이런 귀한 자산을 통해 당장의 현실적 이익을 얻는데 급급하여 국민적인 저항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거꾸로 미래 불교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는 많은 신도들을 잃는 큰 손실을 안게 될 것이다. 차체에 종단과 관광 사찰은 문화재 안내 시스템 개발과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이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기회에 1년에 2천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사찰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불교정신을 심는,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포교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화재 관리 더 강화

중종 신론 사회면에 올라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소중한 문화재의 도난 소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재 도난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를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가 94.8%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늦은감은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도 법률적으로 보호하려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니 다행한 일이다. 주로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500m 이내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발굴유물의 국가귀속 체계의 정비 그리고 도난의 근절을 위해 비지정문화재도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사범에게 처벌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유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호시탐탐 문화재를 노리는 도둑들에게 철저한 대응으로 경고가 되어야 한다.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속담을 교훈삼아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이 발로해야만 문화재를 지킬 수가 있

다. 많은 사찰에서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보존에 소홀한 실정이다. 좀더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재지킴이가 되었으면 한다. 소홀한 관리는 도둑의 눈길을 끌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법이 있으니까 이전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반 국민 예전 문화유산이지만 불자들에게는 바로 신앙의 대상이던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차체에 대해 사찰은 물론 종단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을 책정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초빙하여 문화재보호법이 잘 운용되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나 법만으로 문화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통찰하고 우리 손으로 먼저 일구어 가야 한다. 문화재는 그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과 함께 민족이 지니는 자긍심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 민족의 값어치를 부가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값진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가 문화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만들자”

‘21세기 관광문화 만들기 시민토론회’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수백만명의 대규모 대중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가가 낮은 산지를 개발하면서 산림생태계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가슴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 등 전통도시들은 역사경관을 보전하기 보다는 개발논리에 의해 조금씩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사찰과 고승유적 등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벨트 개발도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가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21세기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만들기 시민토론회’는 자연과 문화환경의 총체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관광문화 정립을 모색한 자리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찰과의 환경분쟁이 늘어났고 있는 가운데, 관광사찰의 바람직한 친환경적 포교방안을 가능할 수 있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역사도시보전법 제정”

오민근(서울대 조경학과 박사과정)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역사경관은 지방재정호부 수입원으로 전락했다. 개발 문화재 위주의 관련 법규로는 역사도시 보전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향토문화유적지의 보전과 역사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역사경관보전 개념이 문화재 위주에서 문화재를 포함한 주변경관으로 확대·전환 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역사경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칭) ‘역사도시보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 역사도시의 경관보전과 관광

자원 보전이 가능토록 하고, 지자체의 역사적 경관 특성에 따른 조례가 제정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역사경관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부’ 승격을 통한 역사경관보전관련 업무의 전담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흩어져 있는 역사경관 보전관련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담당하여, 개발압력에 적극 대처하게끔 해야 한다.

“녹색 여가문화 필요”

김재일(두레생태기행 대표)

경주의 역사유적은 다시 1000년 뒤에도 존재할 것이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습은 지금의 경관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존중, 생태이해, 민족정서를 배태로 하는 생태주의 환경운동 또는 생태기행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과 소비창략적 여행풍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생태기행이 자주 열리는 이유는 자연과 유리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단절된 교감의 끈을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제2의 대안교육 방법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 및 감성교육에 실용이 있다. 또 그 지역의 문화는 자연생태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러나 생태기행을 지속가능한 환경해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 자연에 대한 경의심, 현지인들에 대한 예의 등 ‘자연에 대한 예의(지침)’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유상오(주택공사 도시기획팀 부장)

삶과 문화를 새로운 시대상과 지역상,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KSDN)가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21세기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만들기 시민토론회’ 장면.

환경친화적인 특성과 조화시켜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지역상은 지역전통문화를 보전하면서 미래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역사문화유산의 복원 및 재현, 보전, 유지, 창조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역사문화와 대안문화의 공유부문을 적극 개발, 인터넷을 통한 지역사회기법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역사경관의 발굴과 보전이 중요하며 가까운 숲이나 자연자원을 보호해 지역특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또 주민 스스로 문화를 개발·조직할 수 있는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별 문화전문가를 양성하여 최대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요구된다.

“경제보다 문화가치로”

한범수(경기도 관광학부 교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관광의 주된 속성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문화의 교류를 촉진해 주는 것이 관광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관광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에서 문화적인 가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길가에 산재해 있는

물 하나, 풀 한 포기에도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역사)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현재의 세대는 물론 미래의 세대가 영구히 그 가치를 간직할 수 있도록 ‘관광의제 21’이 문화환경의 실천덕목이 되어야 한다.

정리=김재경 기자

“지속가능 개발”이란

1980년 세계 자연보전연맹(ICUN),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 세계 야생생물기금(WWF)이 공동으로 제시한 세계보전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83년 발췌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자연개발, 투자방향, 기술적·제도적 변화의 방향이 조화를 유지하며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강화하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엔 사상 첫 종교지도자평화회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맞는 말이다. 따라서 종교지도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선택한 ‘평화 선언문’, 즉 “세계 종교계는 민족·종교로 인해 발생한 분규에 적극 개입, 해소 시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로이더통신과 같은 냉소적인 비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코피 아닌 유엔사무총장이 8월 31일 평화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력이다”며, 1천여 종교지도자들에게 당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불교계도 이번 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과 분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종욱 (취재2부 기자)

가 세계와 티베트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지만, 중국 대표단에게는 한낱 정치적 망명자이기 때문이다. 이 해프닝으로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지도자 모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이해성 의견과 “종교지도자들은 감정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평화회의 기사를 보도한 로이더통신과 같은 비난성 견해다. 티베트와 중국 종교지도자간에 예상되었던 충돌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정도로 ‘무기력’한 평화회의를 향한 비난이다. 이해와 비난.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유

종교지도자들의 약속

회의에서 선택한 ‘평화 선언문’, 즉 “세계 종교계는 민족·종교로 인해 발생한 분규에 적극 개입, 해소 시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로이더통신과 같은 냉소적인 비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코피 아닌 유엔사무총장이 8월 31일 평화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력이다”며, 1천여 종교지도자들에게 당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불교계도 이번 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과 분규를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명향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염병 보현행린풍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용도: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갑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용도: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동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 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명향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쳐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지만 허약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픈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발모 변비 근육통 무릎 통증 오심 구역 설리통 관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협심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지혈암

심천 박남희 지음 값 8,000원 ※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